

금리인하 시그널 나올까… 이주열 입에 관심 ‘집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국정감사

한은,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경계
올해 2.2%대 GDP 성장률 불투명
글로벌 투자銀 성장률 1%대로 전망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오는 8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을 통해 기준금리, 물가, 경제성장을 등과 관련된 발언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국감 직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에서 한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감 이후 한 주 뒤인 오는 16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4%)를 기록하면서 10월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은 경기 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기준금리

를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인하했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정부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를 기록했음에도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가격 지속 하락) 우려로 변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요 축소가 물가 하락을 부르고, 물가 하락이 투자와 고용 악화를 일으켜 다시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 저물가까지 겹치면서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총재는 지난달 27일 출입기자워크숍에서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면서 “지난 7월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하방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9%로 3%대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했지만 올해 들어 1월 2.6%, 4월 2.5%, 7월 2.2%로 잇따라 내렸다.

최근 이 총재의 발언 변화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2%대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국내외 연구원, 글로벌 IB(투자은행)에서는 1%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상태다.

이 총재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발표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전망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 경기가 계속 둔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s9@metroseoul.co.kr

“中·대만·홍콩 갈등, 韓경제에 악영향”

한은보고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성장 하방압력 작용 가능성 커

최근 중국과 대만·홍콩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관계 악화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과 대만·홍콩과의 관계: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대만행 개인여행 잠정 중단 조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관련 시위 등으로 중국과 대만·홍콩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중국과 대만·홍콩간 경제적 연계성은 상당히 높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대만의 최대 수출국(29%)이고, 대만도 중국의 3대 수입국이다. 대만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에 달한다.

홍콩도 중국 제2의 수출국이고, 홍콩의 대(對) 중국 거래는 전체 교역 중 5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중국 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 위안화 국제화 등의 측면에서 홍콩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대중추가관세 부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과 함께 대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이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대만 성장률은 2%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도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시위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성장세가 상당폭 위축될 전망이다. 홍콩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홍콩에서 시위자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발해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5일(현지시간) ‘홍콩에 영광이’라는 현수막을 든 시위대가 우산을 쓰고 홍콩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기준 2~3%에서 0~1%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해외 IB(투자은행)들은 홍콩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도 대만·홍콩과의 관계 악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의 교역 부진,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등은 중국의 고용, 핵심부문 기술 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로 중국 소재 대만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며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콩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 관련 투자가 감소하고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대만·홍콩과의 관계 악화로 성장 둔화에 더해 금융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중국 경제 경착륙론이나 위기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 금융연계성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의 관계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주 기자

韓-日 간 관광 위축…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

韓→日 방문, 전년 동기比 27.6%↓
日→韓 방문, 전년 동기比 10.8%↓

올해 여름휴가 기간인 7~8월 중 일본을 찾는 한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됐고,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2019년 여름 휴가철인 7~8월 중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는 87만 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33만 1494명) 감소했으며, 올해 같은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숫자는 60만 44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만 8945명)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양국간 방문 여행객 수 및 여행항목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연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8월 중 방일 한국인 감소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353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한산한 일본항공 탑승 수속 카운터

1784억원, 취업유발 감소인원은 2589명에 달했다.

한국 역시 비록 방한 일본인이 증가했지만 방일 한국인이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생산유발액이 399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유발액도 54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취업유발인원은 272명 증가했다.

유환의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올해 7~8월 중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늘었음에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한 것은 우리 항공 산업의 피해 때문”이라며 “양국 관계 악화가 지속되어 방한 일본인 관광객마저 줄어든다면, 국내 경기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금융위, 어르신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관리사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

금융위원회가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휴면 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고령층의 휴면재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 4687억원 가운데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이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

중이 18.8%임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는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韓, 1~7월 수출액 작년比 8.94% 감소

올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대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등 각종 악재 속에서 교역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다.

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전년 대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감소율이 가장 커졌다.

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은 3173억 700만 달러(약 380조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4% 줄어들었다. /선태성 기자